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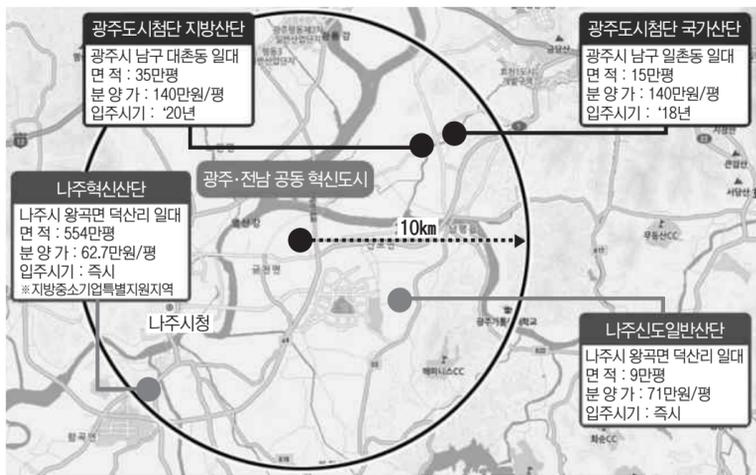
한전, 지자체와 에너지밸리 191개 기업 키운다

국토부 '혁신도시 10대 협업사업' 선정...사업 관리·80억원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전력ICT 등 인증·컨설팅비 등 지원...이달까지 접수 광주 해외판로개척 등 7개·전남도 R&D 자금지원 등 7개 사업 펼쳐

한국전력이 에너지밸리 조성 활성화를 위해 191개 기업을 지원하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전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4일 동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지원계획을 에너지밸리플라자 누리집(energyvalley.co.kr) 등에 통합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사업별로 다르다. 에너지밸리 조성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10대 협업사업'에 선정됐다. 한전과 광주시·전남도, 기업육성 전문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등이 협업사업에 동참한다. 한전은 사업 관리, 전문기관은 사업 지원을 맡고

지자체는 80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투자실행기업, 에너지밸리 투자협약기업이다. 한전과 지자체, 유관기관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인력양성을 돕기 위해 14개 사업을 펼친다. 선정 기업은 191개로, 총 지원 금액은 80억원에 달한다. 광주시가 주관하고 광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은 7가지이다. ▲R&D 및 자금지원 ▲비즈니스 모델(BM) 수립 및 맞춤형 R&BD(사업화) 지원 ▲에너지신산업 사업발굴 지원 ▲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제품디자인 고급화 지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이다. 전남도의 7개 사업은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에너지밸리산

■에너지밸리 범위



학융합원 등이 담당한다. R&D 자금지원과 ▲에너지밸리체인 상생 협력 지원 ▲에너지융합 사업과 역량강화 지원 ▲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업 맞춤형 청년(인턴) 지원 ▲에너지밸리기업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펼친다. 에너지밸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부분은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정보통신 기술(ICT) 등 핵심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이다. 에너지신산업 신규 과제를 발굴하면서 판로를 개척하고 전문가 경영상담과, 비대면 해외시장 진출, 에너지산업 기업지원포털 구축 등도 펼친다. 수출 기업이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드는 인증비와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며, 해외 수출을 위한 홍보물 제작도 돕는다. 한전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연구 인력 육성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감안해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신기술에 대한 숙련된 실무 인재를 키워낸다. 한전 관계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에너지밸리의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농촌인력난 해소... '일손 돕기' 나서



농협 전남지역본부 직원이 18일 화순 한 농가에서 복숭아 과실을 수확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화순 복숭아 농가 적과 작업 지원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8일 농협 화순군지부, 화순지역 농협 직원 30여 명과 화순군 사평면 복숭아 재배농가에서 일손을 보탬다고 이날 밝혔다. 봉사 참가자들은 이날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수확하는 적과 작업을 벌였다.

이번 일손 돕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농촌의 일손부족 심화 현상과 최근 몇 년간 재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에 보탬을 주고자 마련했다. 전남농협은 지난달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 이후 지속적으로 마늘종 뽑기, 조생양파 수확, 바나나 묘목 제거작업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앞장섰다. 농촌마을 환경정화활동, 취약계층 대상 우리 축

산물 꾸러미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남농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특수환경 등으로 인해 농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등 농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할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농수산식품 홍보영상 'aT 스튜디오' 서 만드세요

11번가 등 e커머스기업서 소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수산식품의 디지털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aT 스튜디오'가 최근 문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스튜디오는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 마련됐다. aT는 광주와 대구 등 지역 민간 스튜디오와 연계해 지역별 거점 스튜디오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aT 스튜디오'는 230㎡(70여 평) 규모로, 30여종의 최첨단 촬영 장비를 갖췄다. 사진 촬영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소셜미디어(SNS) 등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크로마키 스튜디오', 라이브 커머스(생방송) 진행이 가능한

'라이브 스튜디오', 해외 수출 상담 지원을 위한 '온라인 화상상담실'로 구성됐다. 지난 12일 개소를 기념해 11번가와 진행한 생방송 판매에서는 1시간 만에 23만5000명이 시청하기도 했다. 이날 판매에는 쌀과 표고버섯 등 지역 특산물이 선보여졌다. 앞으로 aT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홍보물들은 11번가·네이버 등 e커머스기업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국제식품박람회와 K-푸드 페어 등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a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문의 02-6300-190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손보 전남총국, 연도대상 8개 농축협 수상

개인 부문도 금상·은상 등 12명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은 '2020년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에서 전남지역이 사무소 부문 8개 농·축협, 개인 부문 1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장흥 안양농협 등 5개 사무소가 연도대상 대상을, 해남 계곡농협 등 3개 사무소가 우수상을 받았다. 개인 부문은 12명으로, 금상은 장흥 안양농협 오승자 사무, 해남 황산농협 윤태철 계장에게 돌아갔다. 은상은 함평 천지농협 박성희 과장, 해남진도축협 윤유철 차장, 광주축산농협 김현성 사무가 수

상했다. 전남에서는 동상 1명, 우수상 4명, 신인상 1명, 특별공적 1명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양농협은 지난해에도 농·축협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사무소 종합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승우 총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 실익을 위해 노력해준 연도대상 수상 사무소·직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손해보험 실적에 대해 전국에서 우수사무소와 임직원을 선발·시상하는 제도다. /백희준 기자 bhj@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중개 환영. 010-3605-5000

오피스텔 신축 부지

-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 매매 - 협의

거문도, 싼땅

-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 대지 50 ~ 400평씩 매매
- ▶ 펜션, 주택, 별장부지
- ▶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 ▶ 근접땅 경매로 50만원 낙찰
- ▶ 매매 - 평당 30만원씩

거문도 별장 주택

-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 대지 221평, 건물 21평
- ▶ 방 2, 화 2, 거실, 주방
- ▶ 바닷가 최고 전망
- ▶ 텃밭, 정자, 내부시설
- ▶ 매매 - 2억2000만원